정부, 김장 물가 안정 640억 투입 '역대 최대'

새우젓 등 양념류 200억 규모 특별전

비축·계약재배 물량 시장 상황별 공급

민생밀접 품목 관리·체감 극대화 중점

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집중 점검도

정부는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농축수산물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김장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인 약 640억원 규모의 김장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40억원을 투입해 주요 김장 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비축·계약 재배 물량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격이 오른 새우젓 등 일부 김장 양념과 주요 수산물은 20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철 특별전'을 열어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비축 물량 확보와 조기 출하 등을 추진해 엘니뇨·한파 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발표된 것을 두고 "가공식품 등이 올랐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속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체감 물가는 지표 물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 차관은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밀접 품목 집중 관리 ▲구조적 물가안정 기반 강화 ▲정부 지원의 국민 체감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물가를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유통 구조 효율화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할당 관세·할인 지원 등 세제·재정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김장철 대비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주요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4일부터 12월4일까지 31일간 전남광주시 관내에서 유통되는 배추김치와 주요 김장 양념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의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 점검을 강화한다. 농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최근 화순군에서 열린 '제1회 김치종주국의 씨앗 & 화순오픈스페이스'에서 참가자들이 순환 식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세상을가꾸는짱 제공〉

전통 식문화 가치 제고·자립 방안 모색

김치종주국의 씨앗 & 화순오픈스페이스

토종 '우리왕실배추' 주목 통합사업 박차

한반도 전통 식문화 가치 제고와 미래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김치종주국의 씨앗 & 화순오픈스페이스'가 열렸다.

3일 행사를 주관한 '세상을가꾸는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우리왕실배추민염관 등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왕실배추보존회와 한국스마트염업조합, 우리왕실배추화순사업 등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단순한 학술행사에서 벗어나, '메디푸드(예방·치유음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스스로 의제를 발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완성하는 집단지성 참여형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OST)' 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부 기조강연에서는 우리왕실배추보존회 공동대표이자 한의학 박사인 김동석 원장이 '전통 김치문화의 계승과 미래 식품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수천 년의 생명력이 응축된 토종 종자 '우리왕실배추'의 가치에 깊이 주목하며, 잎과 줄기를 넘어 뿌리까지 활용하는 순환 식문화를 공유했다.

우리왕실배추보존회는 이번 화순오픈스페이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종자·R&D, 스마트팜 생산, 프리미엄 가공, 브랜딩·유통, 체험관광·교육을 아우르는 통합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태인 '세상을가꾸는짱' 대표는 "이번 행사를 마중물 삼아 씨앗과 소금의 가치로 대한민국 식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GICON, ICT 우수 교육생 일본 연수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3일 "지난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도쿄 일원에서 '2026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 성과자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호남권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육생 12명이 참여해 AI·데이터 분야 첨단 기술의 해외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실무 역량을 높였다.

/안태호 기자

금융취약층 자산 형성·자립 지원

신협, 연 최고 7% '동행적금' 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 계좌 한정 판매

12개월 만기·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

신협중앙회는 3일 "금융취약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 최고 7.0%의 금리를 제공하는 '동행사랑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동행사랑적금'은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형 포용금융 상품으로, 총 2만 계좌 한정 판매된다. 신협은 이번 상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저축 습관 형성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금리는 연 3.3%이며,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7%p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연 최고 7.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성취지원 우대금리 3.5%p ▲자동이체 연결 우대금리 0.2%p로 구성된다. '성취지원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저축금액 납입 시 제공된다. '자동이체 연결 우대금리'는 적금 가입 신협에서 개설한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식 예금계좌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하고, 전체 납입 횟수 중 8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 시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구성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이며, 월 5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1인 1계좌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신행석 신협중앙회 수신지원본부장은 "동행사랑적금은 금융취약계층의 저축 의지를 북돋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회복력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콘진원, 뉴욕서 독립영화 교류 행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뉴욕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 독립영화의 미국 현지 상영과 영화인 교류를 지원하며 해외 진출 기반을 넓혔다.

콘진원은 3일 "뉴욕한국문화원이 주최한 '2026 제1회 뉴욕한국독립영화제'에서 독립영화 상영과 현지 영화계 관계자 교류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25일 뉴욕코리아센터 상영관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편 10편과 단편 5편 등 총 15편이 상영됐다. 콘진원 뉴욕센터는 다큐멘터리와 미쟝센단편영화제 수상작 등 6편의 상영을 지원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협력해 17일 미쟝센단편영화제 수상작 5편을 선보였다. 상영작은 '선희이모', '오조준', '월남보살', '노이즈 캔슬링', '서를 담고' 등으로, 모두 제22회 미쟝센단편영화제 부문별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이다.

/안태호 기자

